2010 NHERI 리포트 제101호 (2010. 5. 28)
작 성 : 이판용 연구위원(6399-5932)
(segie@daum.net)
감 수 : 현성현 금융연구실장(6399-5931)
goodsen7@nonghyup.com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목 차

〈 요 약 〉
Ⅰ. 몽골의 경제 현황 ····· 1
Ⅱ. 몽골의 농업부문 ····· 20
Ⅲ. 몽골의 금융부문 ····· 29
Ⅳ. 향후 협력방향 ····· 50

NHERI 리포트의 全文을 인터넷(www.nher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1. 몽골의 경제 개요

□ 일반 현황

◦ 면적 : 1,564천 km^2(한반도의 7배)	◦ 명목GDP : 42억 달러('09년)
◦ 수도 : 울란바타르	◦ 1인당 GDP : 1,533 달러('09년)
◦ 인구 : 274만 명('09년)	◦ 환율(MNT/$) : 1,382('10.04)
◦ 종교 : 라마교(50%), 기독교(6%)	◦ 세계 7대 에너지자원 부국
◦ 정치 : 이원집정부제, 민주공화제	◦ 천연자원: 구리, 금, 석유, 석탄
◦ 대통령 : 엘벡도르지	◦ 가축두수: 4,400만두(1인당 15두)
◦ 대외정책 : 친서방 실리 외교	◦ 실제 재배면적 : 28만ha('09년)
◦ 언어 : 몽골어(90%), 터키어, 노어	◦ 식량자급률 : 97%('09년)

□ 몽골 경제의 건전성 평가

평가 부문	비 고	평가
[경제구조]		
– 개방경제	–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고도성장 지속	◎
– 산업구조	– 광물 등 1차 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ㅎ
– 시장중심	– 시장 중심의 개방경제 구조	◎
[거시경제 부문]		
– 물 가	– 수입 물가 등 대외 불안요인에 취약한 구조	ㅎ
– 환 율	– 변동환율체제에서 신흥국보다 안정적인 환율 정책 유지	◎
– 경제성장	– 프론티어 국가 중 10%대의 고도 성장세 유지	◎
– 경상수지	– 원자재가격 및 수입물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 재정부문	– 확대 재정정책 지속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국가리스크]		
– 외채상환 능력	– 건실한 외채구조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음	◎
– 제도적 측면	– 신흥국에 비해 제도적 리스크는 낮은 수준	◎
– 투자환경 측면	– 해외자본에 유인이 높음	◎

* 평가: "◎" = 긍정적; "△" = 보통; "ㅎ" = 부정적

2. 몽골의 농업부문 현황

□ 일반 현황

- 농경지 : 130백만ha(목초지 129백만ha, 경작지 1.2백만ha)
- 1991년 시장경제 도입 전까지 식량 자급. 밀,감자 등을 러시아에 수출. 이후 국영농장 해체로 농업생산 감소와 식량 수입국화
- 농업은 GDP 20.6%, 전체 수출의 1/4, 농업종사자 385천명(전체 산업 고용의 37.7%)[1].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경제활동 인구 중 농림업 종사인구

천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경제활동인구	950.5	968.3	1,009.9	1,024.1
농림업종사인구	381.8	386.2	391.4	385.6
비 율(%)	40.2	39.9	38.8	37.7

자료 : 몽골통계청

농업부문 생산액

백만 튀그릭

구 분	2005	2006	2007
계	852	982	1,320
곡물	113	147	173
축산	738	834	1,147
축산업비율	86.7	85.0	86.9

자료 : 몽골 통계청

□ 몽골의 농업 분야

- 조방적 축산 : 전통적인 반 유목형태로 낙타, 말, 소를 방목하며 전 국토의 80%를 사용
- 집약적 축산 : 젖소, 돼지, 가금류
- 집약적 농업 : 감자, 채소
- 대규모 기계화 작물생산 : 곡류, 사료작물

1) ADB, 2008

- 2009년 곡물[2]은 392천톤 생산하여 '08년 대비 84% 증가, 자급률 98% 달성. 밀 재배면적 226천ha
- 서류가 13천ha, 151천톤 생산으로 2008년 대비 12% 증산, 자급률 100% 초과 달성
- 채소는 7천ha(78천톤)으로 자급률 60% 수준
- 사료 작물[3] 5천ha(14천톤)

농산물 생산량

천톤

구 분	2007	2008	2009
곡 물	114.8	212.9	391.7
감 자	114.5	134.8	151.2
채 소	76.4	78.6	78.0

자료 : 몽골 통계청

주요 작물의 자급률

구 분	자급률 (%)		
	2007	2008	2009
곡 물	27	57	98
감 자	86	100	110
채 소	40	60	59

자료 : 주몽골대사관 재구성

□ 기후 요인

- 연간 200~400㎜로 적은 강수량, 작물재배 가능기간 90~120일, 저온, 예측불가능한 서리 등의 기후조건이 농업생산 저해 요인이나,
- 몽골 정부의 식량자급율 제고 3개년계획(2008~2010)[4]과 '09년의 양호한 기상조건이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

2) 밀,보리,귀리 중 밀이 95% 이상
3) 건초생산량
4) 300억튀그릭 투입, 2008 밀가루공장 납품단가 인상, 휴경지 24만ha 신규 경운작업 실시 등

3. 몽골의 금융부문 현황

□ **몽골의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이지만 경제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

- 현재 몽골 정부는 금융시스템 발전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급결제 시스템 등의 금융 인프라와 제도개선 추진

□ **자본시장이 미발달한 몽골의 금융은 개도국에서처럼 상업은행들이 주도. 상업은행들은 외국자본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가 많음**

- 16개의 상업은행(2007년말 기준)이 전체 금융자산의 95%를 점유
- 은행섹터의 전체자산은 '03년 GDP의 52% → '07년에는 87%로 급성장

□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최근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

- 비생명(non-life) 보험산업은 새로운 보험법이 2004년 초반 통과된 후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 주식시장은 거래규모가 증가추세이나 거래비중은 일부 기업에 편중

몽골의 금융 시스템

자산(십억 투그릭), 비중(%)

	2005			2006			2007		
	수	자산	비중	수	자산	비중	수	자산	비중
은 행	**17**	**1,371**	**97.3**	**16**	**1,899**	**94.7**	**16**	**3,279**	**95.7**
-민영	16	na	na	16	1,899	94.7	16	3,279	95.7
국내	na	na	na	na	na	na	6	967	28.2
외국	na	na	na	na	na	na	10	2,312	67.5
-정부소유	1	na	na	0	0	0.0	0	0	0.0
비은행금융기관	**522**	**38**	**2.7**	**1,096**	**107**	**5.3**	**379**	**146**	**4.3**
-보험회사	na	na	na	19	22	1.1	15	28	0.8
생명	na	na	na	0	0	0.0	0	0	0.0
비생명	0	0	0.0	19	22	1.1	15	28	0.8
-저축대부조합		na	na	955	16	0.8	192	36	1.0
-금융회사	400	38	2.7	122	69	3.4	137	66	1.9
-증권회사	0	0	0.0	0	0	0.0	35	16	0.5
전 체	**539**	**786**	**100.0**	**1,112**	**2,006**	**100.0**	**395**	**3,425**	**100.0**

□ 금융부문 급성장과 함께 신용팽창에 따른 잠재리스크는 매우 높은 수준

- 몽골 상업은행의 주요 건전성 지표
  ▲ '07년말 기준 BIS비율(14.2%), 부실채권비율(3.2%), 예대비율(101.3%)
- 산업대출
  ▲ 원자재 수출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 원자재의 높은 가격변동성은 은행의 대출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
  ▲ 전체 수출상품의 1/2, 정부수입의 1/4 이상을 점하는 구리 생산은 몽골 GDP의 약 20%를 차지. 구리 등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여신 리스크가 높은 상태
-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 역시 주기적인 기후 충격에 노출되어 생산의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은 농업섹터에 대한 대출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1999년과 2000년의 심한 가뭄, 2000년과 '01년의 혹한으로 가축의 1/4를 잃는 등 농업생산의 대부분인 낙농업에 엄청난 손실 입은 경험
- 체계적인 유동성관리 체계와 금융 안전망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잠재적 충격을 흡수할 만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이 제한됨

4. 향후 농협의 협력방향

농업협력 부문

< 기본방향 >

□ 몽골 농업은 농축산물 생산 중대 여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유통 시설 기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상태임

- 최근 농지 인프라 확충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농자재 공급, 농산물 저장시설 등이 미비
- 절대적 비중을 점하는 축산업에 대한 축산물 가공공장 등이 부족

□ 최근 한·몽간 농업협력 교류가 농진청 등 정부기관 주도로 추진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농업기술 지원과 식량 증산에 우선

-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수출 등에 대한 지원 협력 단계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음
- 이 분야에서 한국 농협은 그간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자재 공급과 유통시설 지원 등에 상당한 역량과 지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몽간 농업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부문에서 상호 연계 협력하는 방향을 진행할 필요

- 한국 농협의 對몽골 농업협력은 정부 차원의 협력 사업과 연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를 뒷받침하되,
- 민간 협력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포괄적 기본 협력방향을 담은 한·몽 농협간 MOU 체결[5]함

< 향후 협력방안 >

① 소규모 농산물 저장시설 보급

- 교통 인프라 불리, 농장 산재 등으로 혹한 및 혹서기를 대비 저장시설 확충이 절실
- 몽골의 식량자급도 향상, 장래 식량기지 건설 등 농산물 저장 수요 확 대로 저장시설 확보 필수적
- 농협의 재원으로 저장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마련

② 목초 및 사료용 옥수수 확보를 위한 (주)농협사료의 진출

- 농진청이 동몽골에서 목초류 시범재배 중이며, 농협은 몽골농협과 협력, 목초 가공공장 건설 검토

5) 2009.6. 울란바타르에서 한몽 농협 회장간 체결

- 몽골농협과 협력, 사료용 옥수수 시범재배와 증산시 옥수수 수입 검토

③ 축산물 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주)목우촌의 진출

- 몽골내 풍부한 축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가공공장 건설 검토
- 양질의 축산가공품 생산으로 몽골 내 소비 내지는 인근 러시아, 중국, CIS 국 등에 수출 가능
- 한국형 음식을 선호하고 있어 '또래오래' 가맹점 수출로 몽골내 축산가공식품 시장 점유율 제고

④ 기체결한 한몽농협간 MOU의 실행 구체화를 위한 중앙회 및 계열사의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 농협사료, 목우촌을 비롯한 농협물류, 농협유통, 농협여행, 남해화학, 서울우유 등 계열사들의 광범위한 단계별 진출 방안 수립 검토

⑤ 직원 몽골농협 파견 등

- 농업협력 부문을 총괄할 직원 몽골농협에 파견근무 시행
- 현지 주재 근무를 통한 부문별 몽골 진출 타당성 검토 및 몽골 현지 전문가 육성

⑥ 시범농장 운영

- 국제옥수수재단 등과 협조로 사료용 내지 바이오에너지용 옥수수 재배 적극 검토
- 현지의 기후, 토양, 인프라 등 농업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농장 운영이 바람직
- 현재 농진청이 시범재배하고 있는 동몽골은 원격지로서 울란바타르 인근 지역 농장 확보를 검토할 필요

금융협력 부문

< 기본방향 >

□ 몽골의 금융시장은 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며, 아직 금융 인프라가 미비한 몽골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은 클 것으로 보임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자본이 직접투자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진출을 추진

□ 최근 자원부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해외 자원개발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몽골진출에 대한 유인이 커짐

-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제휴, 기술협조 등 현지 은행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한국 농협은 국내 은행과 같은 금융역량이 있을 뿐 아니라 농업금융, 상호금융, 유통사업 부문을 연계하는 종합금융의 역량과 기반을 가지고 있어 진출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농협의 몽골 금융부문 진출은 현지 농업 및 원자재 개발사업, 농축산물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

- 특히 농업개발과 연계한 농업금융은 몽골 금융시장에 선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금융, 상호금융, 축협부문에서 몽골측이 한국측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현지 전문요원 사전 양성
- 농협은 몽골의 국영 자원개발기업과 상호협력 극대화 부문을 발굴하여 MOU 체결 검토

< 향후 협력방향 >

① 몽골 우량 금융기관(은행)과 포괄적 업무협력 MOU 체결 검토

- 직원 몽골 연수, 파견 등
- 한국 거주 몽골인들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 제공

- 환거래계약 및 자금결제용 계좌 개설
- 서울 동대문의 몽골타운 인근에 몽골인 전용지점 개설 운영
- CD/ATM 이용 송금서비스 시행 등

② 현지 금융기관 인수 등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2000년 이후 해외투자자본의 몽골은행산업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

- 해외자본의 몽골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은 35%(2008년 7월 기준)

○ 단순 지분투자 방안 검토

- 이미 확고한 시장지위를 학보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형은행 등

○ 경영참여를 위한 지분투자(경영위탁, 공동경영 등) 방안 모색

-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위탁이나 공동경영은 성공한 해외자본의 기본전략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

○ 내국인투자자와 컨소시엄 방식

- 내국인투자자(은행, 기업 등)와의 컨소시엄은 저축은행의 민영화과정의 일환으로 추진

③ 그 외 금융 투자 협력 방안 모색

○ 몽골의 우량 자원개발기업(국영 포함)과 MOU 체결
○ 몽골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국내 우량기업들과 MOU 체결
(농협 계열사 포함)
- 몽골의 자원개발 참여, 철도 및 도로 등 SOC 분야 참여 기업
- 몽골의 농업개발(사료공장, 축산물가공공장, 농축산물 저장시설 등) 사업 참여 기업

Ⅰ. 몽골의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 면적 : 1,564천 km^2(한반도의 7배)	◦ 명목GDP : 42억 달러('09년)
◦ 수도 : 울란바타르	◦ 1인당 GDP : 1,533 달러('09년)
◦ 인구 : 274만 명('09년)	◦ 환율(MNT/$) : 1,382('10.04)
◦ 종교 : 라마교(50%), 기독교(6%)	◦ 세계 7대 에너지자원 부국
◦ 정치 : 이원집정부제, 민주공화제	◦ 천연자원: 구리, 금, 석유, 석탄
◦ 대통령 : 엘벡도르지	◦ 가축두수: 4,400만두(1인당 15두)
◦ 대외정책 : 친서방 실리 외교	◦ 실제 재배면적 : 28만ha('09년)
◦ 언어 : 몽골어(90%), 터키어, 노어	◦ 식량자급률 : 97%('09년)

가. 정치 안정도

□ 2009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인 몽골인민혁명당(MPRP)을 누르고 압승함에 따라 정치 및 경제 부문의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정치적인 안정으로 국가리스크는 축소되면서 자원개발 관련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집권 초기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 전 정권은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인 자원개발정책을 추진

□ 몽골에 대한 글로벌시장의 평가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

○ 최근 몽골 경제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몽골에 대한 평가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격상

- OECD 기준 국가 등급평가는 「6/7등급」('08년 4월 기준)

<해외 기관의 평가 및 순위>

평가 기관	최 근		'07년 순위
	순위 및 등급 ('08. 3)	순위 인접국	
I.C.R.G.	83위/140	인도(81위), 필리핀(84위)	87위/140
Euromoney	95위/185	온두라스(94위), 파키스탄(98위)	117위/184
I.I.	111위/174	시리아(100위)	114위/172
Moody's	B1('08년 4월)	자메이카, 벨라루스	-

나. 대외 관계

□ 구소련 붕괴 이후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구

○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적인 노선을 택해 왔으나, 지정학적 여건상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함

○ UN 등 다자간기구, 미국, 한국, 일본('91년 이후 최대원조국) 등과의 유대관계 개선 및 유지에 노력

□ 몽골의 주요 교역국

○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며 수입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한국은 4위의 몽골 교역국으로 부상

- 수출의 경우 교역액의 60% 이상이 중국이고, 이 중 50%가 구리임

<몽골의 주요 교역국>

수출	백만$	비중(%)	수입	백만$	비중(%)
중 국	163	64.2	러시아	1,245	34.4
미 국	113	4.4	중 국	1,183	32.7
러시아	85	3.3	일 본	239	6.6
한 국	30	1.1	한 국	195	5.4

* 자료: 몽골 통계청, 2008년말

□ 對中國 관계

○ 1950년 이후 중-소 대립시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했으나 중소간 긴장관계가 풀리면서 관계개선이 이루어짐

-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50%, 수입의존도는 25%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은 몽골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양국간 무역 규모는 '89년 2,400만 달러에서 '05년 8억달러로 급신장 추세

□ 對러시아 관계

○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개혁과 무역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러시아 관계가 다소 소원했지만, 푸틴 대통령 이후 상당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짐

- 러시아는 몽골 기간산업에 투자된 약 110억달러 규모의 구소련 채권의 98%를 탕감하는 등 유화적인 외교정책 추진

○ 발전소, 탄광, 도로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 관련 프로젝트(700여개)가 러시아 원조금으로 진행되는 등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은 편임

- 러시아 기업은 합자회사(200여개) 형태로 몽골 투자(2,000만달러 상당)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30% 정도로 중국과 더불어 중요한 수입국임

□ 對美國 관계

○ '01년 9.11 사태 이후 몽골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급격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짐

-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낙후 지역 개발자금으로 1억달러를 지원하고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가 '12년까지 2.85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을 통한 대몽 원조기능 강화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적극적인 對韓 협력 추진

- 몽골은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아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시
- 1990.3.26 수교 이후 20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관계 구축

○ 한·몽 정부간 주요 조약, 협정체결 현황(22건)

- '91.3 :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91.3 : 무역협정
- '96.12 : 대몽골 대외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99.11 :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06.6 : 사회보장 협정
- '09.9 : 출입국간소화에 관한 교환 각서 등

○ 대몽골 무역 및 투자현황

- 한국의 대몽골 교역량
  - ▲ 주요 수출품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호식품 등
  - ▲ 주요 수입품 : 광물(금,은,형석 등), 의류, 가죽

< 한국의 대몽골 교역 추이 >

천달러

구 분	05	06	07	08	'09년상반기 / '08년상반기
총 액	76,495	104,000	190,400	224,486	75,511 / 101,982
수 출	71,726	83,000	169,700	194,595	71,296 / 80,909
수 입	4,733	21,000	20,700	29,891	4,215 / 21,073

자료 : 몽골통계청

– 한국의 대몽골 투자

▲ 투자누계 : 2.04억불
▲ 등록 투자기업 수 : 1,813개사
* '09년 6월말기준, 자료: 몽골투자청

– 투자분야(투자회사 수 및 전체비율)

▲ 무역 및 요식(1,171사, 43.51%), 관광(100, 1.87%), 운송(30, 2.90%), 정보통신(29, 5.27%), 경공업(26, 3.29%), 자원(26, 11.62%), 건축(25, 2.54%), 보건-미용(22, 0.60%), 교육-문화-과학-언론(14개사, 2.87%)

– 주요 기업 현황

▲ 한국통신 : 몽골통신에 40% 지분으로 경영권 참여중
▲ 삼성물산 : 에르데넷 동광으로부터의 동정광 (copper concentrate) 구매가 주업무
▲ 대한항공 : 서울-울란바타르간 직항노선 운영
▲ 대한전선 및 SK텔레콤 : 몽골 제2 휴대용 전화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7.10부터 사업개시
▲ 대한석탄공사 : 2009.12 코스닥기업 (주)엔알디와 서몽골 바양울기 지역의 누르스트 유연탄 광산개발을 위한 MOU 체결
▲ 대성그룹 : 울란바타르 외곽 에너지파크 프로젝트 참여 2010년 마무리. 테마파크, 쇼핑몰 등 건설 운영 계획 중
▲ 포스코 : 2010.4 몽골 최대기업 MCS와 코크스 석탄가스화 기술 전수를 위한 MOU 체결. 몽골 자원에너지부와 몽골의 유일한 제철소인 다르항 제철소의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MOU 체결

- ▲ 대한광업진흥공사 : 타반톨고이 광산[6] 석탄 채굴 참여 계획
- ▲ LG 상사, 삼탄 등이 자원분야에 투자 모색중
- ▲ 기타 현대 · 기아자동차 지정 Dealer 및 정비공장

○ 한국의 대몽골 유·무상 원조 현황
- 무상원조 : 1991-2009 총 지원금액 : 5.1백만불
- 유상원조 : 82.8백만불

다. 사회 안정도

□ 인종 동질성, 낮은 인구밀집도 등으로 전반적인 사회 불안요인은 크지 않음

○ 사회안전망은 건전한 편이나 울란바타르 등 대도시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 소요 사태는 없으나 정부 및 관료들의 부패, 해외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사회적 측면의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2007-08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국제연합개발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중간등급 국가분류(71위-155위)중 114위를 차지

○ 실업률, 문자해독률, 교육지출 등은 양호한 편이나 영아사망률 등 보건 부문은 개선은 아직 취약한 상태임

○ 국제 투명성기구의 '07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 따르면 전체 179개국 중 99위를 기록해 개도국수준의 국가 투명성을 유지함

6) 약50억 톤 매장 추정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구 분		몽 골	한 국	세계 평균
보건	평균수명(세)	65.9	77.9	71.7
	HIV 감염	0.1% 이하	0.1% 이하	-
	영아사망률(%)	3.9%	0.5%	2.5%
교육	문자해독률(%)	97.8	-	90.7
	GDP 대비 교육지출	5.3	4.6	-
소득	실업률(%)	3.3	3.5	-
	지니계수(0-100)	32.8	31.4	-
남녀 평균	여성 국회의원 비율	6.6	13.4	-
	성별 소득격차($)	여-1,413/남-2,799	여-12,531/남-31,476	-

* 자표: 2007-2008 Human Development Index.
주)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계측 범위는 "0-100"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음

□ 몽골은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간 경제교류 및 교역이 활발한 국가로 분류

○ 경제의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화지수' (Heritage와 Wall Street Journal 공동조사, '08년)는 62.7%로 세계 62위 수준임. 이는 아태지역 30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특히 Business, Trade, 재정 및 통화정책 부문은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재산권(Property Rights), 투자(Investment) 등의 부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몽골의 경제자유화 지수 평가>

평가항목	점수	평가 내용
Business	71.1%	•사업의 설립, 운용, 청산에 비교적 짧은 시간 소요 •창업소요일수20일(세계평균 43일)
Trade	81.4%	•2005년 평균관세율 4.3%, 다양한 비관세장벽 존재
Fiscal	85%	•2006년 포괄적 조세개혁(소득세 10% 고정)
Government	71.7%	•정부총지출(소비 및 이전 포함) 양호 •2006년 G에 대비 재정지출(30.7%) •2006년 14개 국영기업 민영화
Monetary	78.2%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04-'06년 평균 7%) •정부의 가격통제 및 보조금 지급은 단계적으로 철폐 •공공부문 및 규제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계속 중
Investment	60%	•법적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보장 •외화지급 및 이전에 제한 자유화 •토지소유에 대한 등록제
Financial	60%	•은행위주의 금융시스템 •2005년 ADB 투자(1,000만달러)를 통한 금융시스템 개선 •16개 상업은행(2개 외국계) 중 4대은행 차지비중(60%) •은행 감독 및 통제체제 미비
Prosperity Rights	30%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 미흡 •계약내용에 기초한 사법절차가 존중되지 않음
Labor	62.4%	•규제적 노동관계법으로 고용 및 생산력 저하 초래

* 자료: 2008 Economic Freedom Index

2. 주요 경제지표 추이

<거시경제지표 추이>

구 분	(단위)	'05	'06	'07	'08	'09
명목GDP	백만$	2,307	3,156	3,894	4,241	4,173
실질경제성장율	%	7.3	8.6	10.2	8.9	−1.6
물가상승률	%	12.7	5.1	14.1	23.2	1.9
재정수지/GDP	%	2.9	9.0	−2.0	−4.1	−5.4
환율($1당, 평균)	MNT	1,221	1,165	1,178	1,268	1,443
M2성장률	%, 전년대비	37.3	30.8	57.3	−5.1	26.9
단기 국채금리	%	3.7	5.1	8.4	9.8	10.0
대외채무	백만$	1,308	1,405	1,480	1,582	−
대외채무/GDP	%	64.1	51.0	48.6	49.8	−
수출	백만$	1,069	1,545	1,952	2,534	1,902
수입	백만$	1,224	1,516	2,170	3,147	2,060
무역수지	백만$	−155	30	−218	−613	−158
무역수지/GDP	%	−6.7	5.2	−2.2	−14.8	−3.7
수출비중(GDP대비)	%	46.3	48.9	50.1	59.8	45.6

자료: IMF Country Report(2008, 2010); EIU Country Report(2008); Global Insight Country Report(2008).

□ 경제성장

○ 국제 원자재가격의 강세와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 진작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세 유지할 전망

- 10% 내외의 성장('07년 10.2%.'08년 8.9% 등)을 지속해온 몽골 경제는 '09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1.6%)으로 전환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을 회복할 전망

○ 2010년에도 원자재가격 강세와 이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FDI)로 8% 안팎의 성장을 유지할 전망

- 2006년 광물법(Mineral Law) 개정을 통한 장기투자 보증, 법인세 감면 혜택 등으로 FDI 증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외채비율 향상 및 광업 분야 투자로 인한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몽골의 중장기 국채등급을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외화차입 및 해외자본 유인 여건이 크게 개선됨

□ 물 가

<물가관련 거시지표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간 평균, %)		
CPI	12.7	5.1	14.1	23.2	1.9
GDP Deflater	20.4	23.1	12.3	20.2	7.5
			(In Percent of GDP)		
통화량(Money&Credit)	92.4	103.5	26.7	18.1	-
(통화량증가율)	(37.3	30.8	55.6	-5.1	20.0
평균 대출금리	28.3	24.5	20.3	-	-

* 자료: 2010 IMF Country Report

○ 원유 등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그간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급등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2006년 5% 대에 머물던 물가는 14%('07년), 23%('08년)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09년(1.9%) 들어 안정되는 모습

○ 주요 물가 상승요인

-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통화량(M2) 증가
- 확대 재정정책 기조 유지

-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07년 들어 물가 상승압박 심화
- 고유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운송비 인상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가격 상승

○ 물가상승은 경기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안정된 모습

-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강화될 전망

□ 환 율

○ 몽골의 외환시장은 지속적인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최근 몇 년간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09년 금융위기 중 외환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

<대미 환율 변동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간 평균, %)		
대미환율	1,221	1,165	1,178	1,268	1,443
절상(하)율	−0.98	4.81	−1.10	−7.09	−12.12

* 자료: 2010 IMF Countr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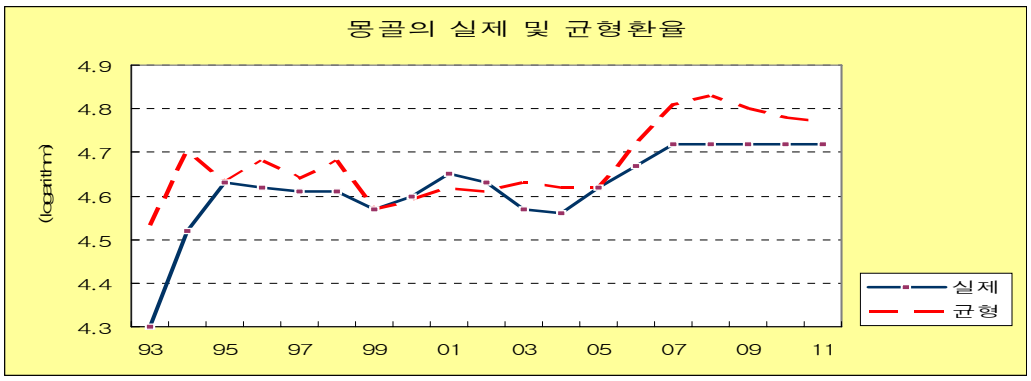
○ 1993년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 Regime)를 도입한 이후 꾸준한 절하과정(Depreciation)을 거쳐 온 투그릭(Tugrik)통화는 외국통화 대비 안정적인 추세 유지

- '05년~'07년간 몽골환율은 중국 대비 12%, 러시아 대비 6% 절하에 그치며 안정된 추세를 보임

- 투그릭/달러 평균환율은 1,221('05년), 1,117('07년), 1,268(’ 08년) 등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 '09년(1,443) 들어 큰 폭으로 상승

○ 균형환율분석(IMF) 결과, 몽골의 환율은 다소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외국통화 대비 몽골환율은 강세추세를 유지할 전망

<몽골 환율 전망>



* 자료: IMF

□ 정부재정 부문

<재정수지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f)
		(Billions of Togrig)			
재정수입	713.1	837.9	1,360.4	1,699.3	2,325.0
재정지출	752.5	764.6	1,059.4	1847.1	2,242.0
재정수지	−38.4	73.9	300.9	−147.7	83.0
		(In Percent of GDP)			
재정수입	33.1	30.1	36.6	37.3	42.6
재정지출	35.5	27.5	28.5	38.4	41.1
재정수지	7.8	8.4	14.8	10.2	12.2
		(재정 건전성지표)			
정부부채/GDP	81.4	60.3	46.7	41.0	34.1
대외채무/GDP	74.6	56.6	45.0	40.4	34.1
국내채무/GDP	6.8	3.7	1.7	0.6	0.3
NPV(정부부채,$)	57.9	44.5	29.8	25.7	21.6
광물수입/정부수입	11.2	13.3	28.6	36.3	31.8

* 자료: IMF, BOM(Bank of Mongolia)

○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온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에서 이들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들어 40%를 초과

-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공무원 임금 인상, 구리가격 하락, 수입곡물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 광물관련 수입의 정부수입 차지비중은 '04년 11%에서 '08년 31.8%로 증가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GDP 대비 정부부채는 '04년 8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며 '08년에는 34% 대로 축소됨

□ 외환보유고 및 외채상환

○ 몽골의 외환보유고는 6.4억(08년) 달러 정도로 추정

- 2007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09년 들어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FDI(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적자폭은 큰 폭으로 축소

○ 대외채무 부문의 경우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차관 또는 원조금 제공 등으로 꾸준히 증가

○ 외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 외채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임

- 2008년 대외채무는 15.8억 달러로 추정
- GDP 대비 대외채무는 57%('05년)에서 34%('08년) 수준으로 감소

○ D.S.R도 구소련 채무 상환이 이루어진 '03~'04년을 제외하고는 4% 미만으로 안정적임

- 총 대외채무 중 양허성 중장기채무의 비중이 높아 외채구조는 양호한 편으로 외채상환에 따른 외화유동성리스크는 크지 않음

<외채관련 지표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05	'06	'07	'08(f)
총외채	1,308	1,405	1,480	1,582
IMF 신용	36	29	23	19
비 IMF 신용	1,271	1,376	1,457	1,563
- 다자간	770	772	763	750
- 공공 양자간	488	493	478	461
- 상업	13	0	0	0
외채잔액/GDP	64.1%	51.0%	48.6%	49.8%
D.S.R.(Paid)	2.9	2.1	2.4	2.8

자료: IMF Country Report, 2007

□ 중장기 외채상환 능력 평가

○ 몽골의 중장기 외채상환 능력을 외채안전성 조건을 이용하여 평가함

<경제규모 대비 외채 건전성 조건>

$$\left(\frac{\text{경상수지}}{GDP}\right) = \left(\frac{\text{총외채(외채이자율} - \text{명목경제성장율)}}{GDP}\right)$$

- 첫째 항목이 둘째 항목보다 클 경우 외채 건전성 유지
- 첫째 항목이 둘째 항목보다 작을 경우 외채 건전성 훼손

- 외채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도 경사수지 흑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외화확보를 통한 외채상환 능력이 개선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외채이자율을 상회하면 경제성장을 통한 외채상환 능력이 개선

○ 몽골의 경우 중장기 외채상환 여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몽골은 '07년 이전까지 (경상수지/GDP) 지표가 GDP 대비 외채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외채상환 구조를 지님

< 외채 상환능력 평가 >

외채 건전성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 [경상수지/GDP]	1.6	1.4	5.2	−2.6	−2.9	−2.8
B: [외채/GDP]	−8.0	−3.8	−3.0	−2.2	−14.8	−7.3
건전성 평가(A−B)	+	+	+	−	+	+

자료 : IMF

□ 몽골 경제 건전성 평가

평가 부문	비 고	평 가
[경제구조]		
− 개방경제	−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고도성장 지속	◎
− 산업구조	− 광물 등 1차 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
− 시장중심	− 시장 중심의 개방경제 구조	◎
[거시경제 부문]		
− 물가	− 수입 물가 등 대외불안요인에 취약한 구조	≒
− 환율	− 변동환율체제에서 신흥국보다 안정적인 환율 정책 유지	◎
− 경제성장	− 프론티어 국가 중 10% 대의 고도 성장세 유지	◎
− 경상수지	− 원자재가격 및 수입물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 재정부문	− 확대 재정정책 지속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국가리스크]		
− 외채상환 능력	− 건실한 외채구조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음	◎
− 제도적 측면	− 신흥국에 비해 제도적 리스크는 낮은 수준	◎
− 투자환경 측면	− 해외자본에 유인이 높음	◎

* 평가: "◎" = 긍정적; "△" = 보통; "≒" = 부정적

3. 몽골의 산업 구조

□ 몽골 경제와 산업은 아직 취약하고 후진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산업기반 미비와 자본력 및 인력 부족으로 외부의존적 경제(ODA 경제)로 자체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교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원자재 가격 등 외부요인에 민감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물자의 효율적 이동에 제약을 가짐

○ 그러나 몽골의 주요 잠재력은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산업구조로 본 몽골의 경제 포지션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놓인 프론티어(Frontier) 국가로 평가

○ 최근 몇 년간 10% 수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신흥국으로서의 국가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해외자본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건설, 금융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후발 주자임

□ 전통적으로 몽골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광대 한 국토에 비해 인구와 소득이 낮은 후진국으로 치부

○ 대외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몽골의 성장을 가로 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그동안 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일본 등 대외원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음

  ▲ 대 몽골 지원규모는 11.4억 달러(2006년 말)로 몽골의 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수치. 2008년에도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각각 3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 받음

□ 세계 7대 자원 부국인 몽골은 광물자원 채취 및 수출, 농·목축업, 일부 경공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

○ 구리, 금, 석탄 캐시미어 등 1차 산품(Primary Product)을 수출하고 석유, 기계, 전자, 자동차 등의 자본재(Capital Goods)를 수입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지님

○ 광업부문에 대한 산업집중도가 높아 산업다각화가 더디게 진행

- GDP 대비 광업비중(2008년 말 기준)은 25% 수준

- 광업부문의 국가 재정수입 차지비중은 32%로 높은 수준

<몽골 경제의 광업 부문 비중>

%

	2004	2005	2006	2007	2008
광업비중(GDP 대비)	17.6	21.9	29.9	27.4	24.7
국가재정 차지비중	11.2	13.3	28.6	36.3	31.8

자료: IMF, Mongolia(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2008)

□ 자원 부국인 몽골은 광물자원 채취 및 수출, 농·목축업, 일부 경공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임

○ 농업 중심의 몽골 경제는 2000년 이후 산업 중심으로 급격한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음

<몽골의 주요 자원 생산량>

광 물	추정 매장량	2003	2004	2005	2006	2007
석탄(천톤)	1,500억톤(세계 10위)	5.666	6,794	8,256	7,885	9.560
동(천톤)	5,500만톤(세계 13위)	131	132	129	132	133
석유(천배럴)	45억배럴	183	198	301	377	850
금(톤)	3만톤	11	19	24	32	17
우라늄	6만2천톤(세계 14위)	–	–	–	–	–
몰리브덴(kg)	3만톤(세계 11위)	1,793	1.141	1,188	1.404	1,978
형석(톤)	1,200만톤 (세계 3위)	270	354	367	393	381

자료: USGS, The Mineral Industry of Mongolia, 2009. 02

□ 최근 상품시장의 성장(곡물, 원자재)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몽골을 성장잠재력을 지닌 프론티어[7] 국가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

○ 해외자본(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지속적인 유입과 확대재정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 해외자본과 기술력의 도입은 건설,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성장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비중>

	광업	무역	은행	경공업	건설업	기타
업종별 직접투자 비중	53%	19%	5%	4%	3%	17%

7) 프론티어 국가(Frontier Country)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몽골 등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단계에 있는, 높은 성장잠재력과 국가리스크를 공유한 차기 이머징국가들을 지칭함

<참 고> 몽골 국가개발 혁신위원회의 「2010~2015 중단기 국가개발 전략계획」 8)

- 경제성장율 평균 11.6% 유지, 1인당 국민소득 3,960 달러 달성
- 수도 울란바타르는 총 4,200억 투그릭을 투입, 난방과 전력생산 시설 확충
- 수도권 인근 날라이흐, 바가노르, 바가항가이 지역에는 대규모 공단 건설 예정
- 수도권 게르 지역에 대한 건축화 사업을 통한 대기오염 해소 사업에 총 800억 투그릭의 예산을 책정
- 울란바타르 수자원 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가초르트 지역에 수원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약 320억 투그릭 배정) 계획
-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대학교 캠퍼스 건설에 150억 투그릭 투입계획

8) KOICA 원조동향보고 2009 4/4분기

Ⅱ. 몽골의 농업부문

1. 일반 현황

○ 농경지 : 130백만ha(목초지 129백만ha, 경작지 1.2백만ha)

○ 1991년 시장경제 도입 전까지 식량 자급. 밀,감자 등을 러시아에 수출. 이후 국영농장 해체로 농업생산 감소 및 식량 수입국화

○ 농업 GDP 20.6%, 수출의 1/4, 농업종사자 385천명(전체 산업고용의 37.7%)[9].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2007)

< GDP 구성비율 (경상가격) >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 계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2.2	21.9	19.5	20.6
광업,제련업	17.2	22.1	30.0	27.5
제조업	6.0	5.8	5.5	6.1
전기,가스,수도업	3.3	3.2	2.8	2.5
건설업	2.7	2.5	2.1	2.2
도소매,수선업	16.9	14.9	14.1	14.2
호텔,음식업	0.8	0.8	0.8	0.7
운송,저장,통신업	12.3	12.3	9.9	10.0
금융중개업	3.8	3.6	2.9	2.9
부동산업	9.1	7.9	6.8	6.5
행정,국방,사회보장	2.7	2.4	3.2	3.9
교육	3.1	3.1	3.3	3.9
보건,사회사업	1.6	1.4	1.5	1.8
기타서비스	1.3	1.1	1.0	1.0
오차	-3.0	-2.9	-3.3	-3.8

자료 : 몽골통계청

9) ADB,2008

< 경제활동 인구 중 농림업 종사인구 >

천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경제활동인구	950.5	968.3	1,009.9	1,024.1
농림업종사인구	381.8	386.2	391.4	385.6
비 율(%)	40.2	39.9	38.8	37.7

자료 : 몽골통계청

< 농업부문 생산액 >

백만 튀그릭

구 분	2005	2006	2007
계	852	982	1,320
곡 물	113	147	173
축 산	738	834	1,147
축산업비율	86.7	85.0	86.9

자료 : 몽골 통계청

○ 몽골의 농업 분야

- 조방적 축산 : 전통적인 반 유목 형태로 낙타, 말, 소를 방목하며 전국토의 80%를 사용
- 집약적 축산 : 젖소, 돼지, 가금류
- 집약적 농업 : 감자, 채소
- 대규모 기계화 작물생산 : 곡류, 사료작물

○ 주요 작물 : 밀, 보리, 귀리, 서류, 옥수수, 목초 등

- 2009년 곡물[10]은 392천톤 생산으로 2008년 대비 84% 증가, 자급률 98% 달성. 이 중 밀 재배면적은 226천ha

10) 밀,보리,귀리 중 밀이 95% 이상

- 서류가 13천ha, 151천톤 생산으로 2008년 대비 12% 증산, 100% 자급률 초과 달성
- 채소가 7천ha(78천톤)으로 자급률 60% 수준
- 사료작물[11] 5천ha(14천톤)

<농산물 생산량>

천 M/T

구 분	2007	2008	2009
곡 물[12]	114.8	212.9	391.7
감 자	114.5	134.8	151.2
채 소	76.4	78.6	78.0

자료 : 몽골 통계청

<주요 작물별 자급률>

구 분	자급률 (%)		
	2007	2008	2009
곡 물	27	57	98
감 자	86	100	110
채 소	40	60	59

자료 : 주몽골대사관 재구성

○ 기후 요인

- 연간 강우량 200~400mm 수준의 적은 강수량, 연간 작물재배 가능기간 90~120일, 저온, 예측 불가능한 서리, 강한 바람 등의 기후조건이 농업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11) 건초생산량

- 몽골정부의 식량자급율 제고 3개년계획(2008~2010)[13]과 '09년의 양호한 기상조건이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

○ 몽골의 가축사육

- 몽골의 주요 가축은 면양, 염소, 소, 말, 낙타, 야크 등임
- 현재 인기 있는 가축은 몽골리안 염소로 캐시미르의 품질이 우수
- 초원은 스텝(steppe) 등 5개의 생물지리 지대로 분류되며 약 600여종의 식물(초종)이 방목(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음.
  * 넓고 나무가 없는 중부와 동부 스텝이 주요 방목지대.

○ 몽골 초자원과 특징

- 몽골의 주요 목초 : 자연초지 위주로 주로 화본과 목초로 구성
  (페스크류, 스페어그라스류, 사초관목류, 노란꽃알팔파, 밀크벳치류 등)
- 목초 생육기간 : 5월 상순 ~ 8월 중순경(초원산림지 기준), 방목 시 수자원(관개)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
- 저장 조사료 : 강우량이 많은 기계화된 낙농지대에서 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 크게 감소 추세임.(알팔파, 귀리 – 건초, 해바라기– 사일리지 등)

○ 몽골 초지의 변화 양상

- 지난 50년간 초지는 감소하는 반면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
  (초지 생산성과 사료가치 감소 → 부실초지, 사막화로 이어짐)

13) 300억튀그릭 투입, 2008 밀가루공장 납품단가 인상, 휴경지 24만ha 신규 경운작업 실시 등

- 방목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도 발생하며 대부분 초지는 과방목되고 있음.
- 가축이 채식 가능한 초종 수 감소 → 가축 비선호 초종의 증가
- 바람과 물에 의한 토양 침식 피해 가중

몽골 초지의 변화 원인
▲몽골 초지는 전체가 국가 소유로 가축과 초지 관리의 이원화 - 가축은 식량농업부 , 초지(방목지)는 자연환경부 소관임 ▲몽골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부재 - 법으로 거의 규제 불가능 ▲초지 이용의 지역적 편중, 불균형 - 물 공급 등 기반시설과 관련

○ 농지 이용형태

- 농지가 농업용지의 1%인 1,300천ha이나 활용 가능한 재배면적은 70만 ha 정도이며 관개 가능면적은 25,000ha임. 따라서 경작지의 절반 가량이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 (2008년 말 현재)
- 2009년의 경우 실제 경작면적은 28만ha로 추정

2. 몽골 농업의 개발 가능성

□ 몽골의 농업정책 방향

○ 축산분야의 질 개선

- 축산물 소비증진 및 수출촉진, 도살장의 현대화, 가축위생 관리체계 개선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관개면적의 확대 (관개재배 가능면적 25천ha)

○ 자연환경 보존 및 겨울철 사료자원의 확보

○ 밀, 감자, 채소의 자급을 위한 경종농업 중시

□ 농업분야 개발 및 진출 가능성 : 몽골농업의 SWOT 분석

강 점(Strengths)	기 회(Opportunity)
-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축산물 -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잠재시장 인접 - 투자 인센티브에 내외국인 차별 없음(외국인투자법)[14]	- 철도, 도로 등 정부의 인프라 개선 추진 - 곡류 및 채소류 소비 확대 전망 - 한국과 2003년 농업협력협정(MOU) 체결(한국 농림부, 몽골 식량생산부) - 한국에 우호적(특히,동몽골농업개발) - 농촌진흥청이 동몽골에서 목초류, 보리, 호밀 등 시험재배 중 - 2009년 한국의 국제옥수수재단이 몽골 적응 하이브리드종 육종 성공[15] - 중국의 식량 및 채소 수입국화 전망
약 점(Weaknesses)	**위 협(Threats)**
- 불리한 기후여건 -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부족 - 인구의 절대 부족 - 내수시장 협소 - 낙후된 농업기술 - 수만ha의 대규모 농지 확보 어려움	- 중국의 진출로 전반적인 산업 장악력 확대 - 몽골은 2009년 러시아와도 양국 농식품부장관간 농업협정 협정 체결

* 허장 외, 해외농업개발전략의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10

14) 자본금 국외송금, 수입, 이윤 등 국외송금 등에서 내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
15) 국제옥수수재단은 몽골에서 2004년부터 6년간 육종 시험재배

3. 한국의 몽골 농업 협력사례

□ KOICA의 '할흐골' 지역 농촌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 2008년 5월 개발협력 차원에서 착수하여 2009년11월 마스터플랜 보고서를 몽골측에 전달

- 동몽골 도르노드 아이막 할흐골솜 지역의 27만ha 초원을 농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구소련 시절 4만ha 정도 농경지로 활용
- 몽골은 북한 노동력 활용 검토 등 향후 남북한 통일 대비 사전 기반조성 권유
- 밀, 감자, 옥수수, 채소류, 과일 등 재배 가능
- 울란바타르와 할흐골 연결 도로 및 철도 부설 계획 중[16)]
- 영농인력, 교통인프라,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일단 200ha 정도의 시범농장 운영 계획
- 인근 할힌강물 관개로 170ha는 밀과 사료작물, 30ha는 비육우방목 및 자연초지 건초 조제 활용계획
- 2009년 한국의 국제옥수수재단이 6년에 걸쳐 육종에 성공한 몽골 적응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검토도 필요
- 우리나라 수입보다는 몽골 내수용이나 중국 내수시장 겨냥이 바람직

□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강원도 농업타운

○ 2004년부터 울란바타르에서 1시간 거리인 터브아이막의 '좀모트솜' 에 7ha 정도의 농지 60년 임대 조건으로 확보

- 토마토, 오이, 무, 배추 등 채소 시범재배 성공

16) 2015년까지 광산연계 철도 총 5,200km 건설 계획.

□ 한국 농진청의 농업기술 지원

○ 2008년부터 농촌진흥청은 몽골 과학식물연구소와 공동으로 몽골지역의 다년생 목초의 생산성 제고 연구에 착수

- 몽골은 가축이 주로 방목을 통하여 사육되고 있으며 작물 생육기간이 3개월 정도로서 겨울철 조사료가 부족한 실정
- 또한 축산업의 집약화로 과방목에 의한 초지 부실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사막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음
- 농진청은 몽골 초지의 식생 회복과 가축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휘트그라스류, 블루그라스류, 페스크류, 황색 알팔파류, 스위트클로버류 등 5초종을 시험재배 중.
-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초종 보급, 우리 재배기술의 접목, 조사료 저장이용 기술을 지도할 계획
- 국내에서 개발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보리,호밀 등을 보급 계획

4. 농업개발 협력시 고려사항

□ 시범농장 경영 절차의 선행

○ 기후, 토양, 인프라 등 현지농업 여건에 적응기간 필요

- 직접영농의 경우 대규모(500ha 이상)경작을 위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 과다 소요로 기계화영농에 대한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사전습득 필요

□ 경작 규모의 단계별, 연차별 확대

○ 임차대상지는 주로 버려진 농지나 휴경지가 대부분으로 농지 용도로 회복에는 비용이 소요. 농지 임차 후 2년 미경작, 임차료 체납 시 토지 임차가 취소되므로 필요 면적 외 임차에 신중

□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 채소 소비의 점진적 증대로 도시 인근에서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고급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

□ 저장시설의 보급

○ 몽골의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를 보낼 수 있는 저장시설 보급이 절실
- 농산물 수송여건 불리, 농장 산재 등을 고려 소규모 단순 저장시설 필요

□ 아직 해외 식량기지로서의 여건은 미흡

○ 밀과 감자는 거의 자급을 이루었으므로 생산성 증대 차원의 협력 고려
- 밀과 감자는 내수공급이나 중국에의 수출용으로 하고 바이오 에너지용 혹은 사료용 작물 재배 검토

Ⅲ. 몽골의 금융부문

1. 금융시스템

□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몽골의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이지만 경제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 빠르게 성장**

○ 금융시스템의 발전이 타 산업에 비해 늦은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 은행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데 부분적인 원인이 있음

○ 현재 몽골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급결제 시스템 등의 금융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추진

□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한 몽골의 금융시스템은 대부분의 개도국 경제에서처럼 상업은행들(commercial banks)이 주도하고 있는데, 상업은행들은 외국자본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가 많음**

○ 16개의 상업은행(2007년말 기준)이 전체 금융자산의 95%를 점유

○ 은행섹터의 전체 자산은 2003년 GDP의 52%에서 2007년에는 87%로 급성장했으며 명목가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4.7배 증가

□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 SCC) 등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s)들은 최근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비생명(non-life) 보험산업은 새로운 보험법이 2004년 초반 통과된 후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거래 비중은 일부 기업에 편중됨

<몽골의 금융 시스템>

자산(십억 투그릭), 비중(%)

	2005			2006			2007		
	수	자산	비중	수	자산	비중	수	자산	비중
은행	**17**	**1,371**	**97.3**	**16**	**1,899**	**94.7**	**16**	**3,279**	**95.7**
-민영	16	na	na	16	1,899	94.7	16	3,279	95.7
국내	na	na	na	na	na	na	6	967	28.2
외국	na	na	na	na	na	na	10	2,312	67.5
-정부소유	1	na	na	0	0	0.0	0	0	0.0
비은행금융기관	**522**	**38**	**2.7**	**1,096**	**107**	**5.3**	**379**	**146**	**4.3**
-보험회사	na	na	na	19	22	1.1	15	28	0.8
생명	na	na	na	0	0	0.0	0	0	0.0
비생명	0	0	0.0	19	22	1.1	15	28	0.8
-저축대부조합		na	na	955	16	0.8	192	36	1.0
-금융회사	400	38	2.7	122	69	3.4	137	66	1.9
-증권회사	0	0	0.0	0	0	0.0	35	16	0.5
전체	**539**	**786**	**100.0**	**1,112**	**2,006**	**100.0**	**395**	**3,425**	**100.0**

* 자료: 몽골중앙은행 자료집 (2008)

□ 몽골의 금융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신용팽창에 따른 잠재 리스크는 매우 높은 수준

○ 몽골 상업은행의 주요 건전성 지표

- 2007년 말 기준 BIS비율(14.2%), 부실채권비율(3.2%), 예대비율(101.3%)

○ 산업대출

- 원자재 수출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 원자재의 높은 가격변동성은 은행의 대출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

- 전체 수출상품의 1/2, 정부수입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 생산은 몽골 GDP의 약 20%를 차지해, 구리 등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여신 리스크가 높은 상태

○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 역시 주기적인 기후 충격에 노출되어 생산의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은 농업섹터에 대한 대출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1999년과 2000년의 심한 가뭄에 이어 2000년과 2001년의 혹한으로 가축의 1/4를 잃는 등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농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준 경험이 있음

○ 체계적인 유동성관리 체계와 금융 안전망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잠재적 충격을 흡수할 만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이 제한됨

○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외환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며, 이는 정부의 통화정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경기변동 리스크와 금융 시스템의 진화에 맞추어 규제·감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몽골의 급속한 금융섹터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당국의 행보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

□ 은행간 결제 시스템

○ 최근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에 의한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비현금 결제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 2008년 몽골 당국은 결제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즉시결제(real time gross settlement, RTGS)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당일결제(end-of-day net settlement) 방식을 대체

○ 카드 사업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지만 카드 처리와 전자 지불 시스템을 위한 공동 플랫폼이 미비하여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거래는 비교적 규모가 큰 2~3개 은행이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이 불가능

- 이에 몽골 정부는 개별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을 대신할 공동 카드 처리 시스템 개발을 2008년부터 착수

□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

○ 금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몽골의 일부 은행들은 독립적인 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음

- 최근 중앙은행의 신용정보국(Credit Information Bureau)은 대출자에 대한 모든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동 신용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

□ 법률 및 규제 환경

○ 금융기관들을 지원할 법률 및 규제적 환경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은행들은 e-banking, 카드 발행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 e-signature 인증, 고객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법과 규제가 충분히 완비되지 않음

2. 은행 부문

□ 2008년 9월 기준, 몽골의 은행권은 16개 은행이 총 981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9천명을 고용

○ 이외에도 37개의 저축대부조합과 181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세한 규모로 금융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 간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

○ 2004~2007년 사이에 은행 예금자 수는 2.2배, 대출 이용자 수는 약 2.0배 각각 증가

<은행 이용 고객수 증가 추세>

지표	2004	2005	2006	2007
대출고객 수	242,304	322,664	490,693	490,297
예금고객 수	525,002	627,629	635,774	1,169,910
은행 이용고객 수	692,564	899,631	1,390,162	1,972,421
은행 점포 수	684	732	832	981

자료: 몽골중앙은행 자료집(2008)

□ 은행 업무의 확대와 이용고객의 증가로 2004년 684개였던 전체 지점의 수가 2007년말 981개로 늘어남

<각 은행들의 지점 수 변화 추이>

	은 행	2007	2006	2005	2007/2006	2007/2005
1	칸 은행	466	423	397	43	69
2	상업 은행	20	18	17	2	3
3	저축 은행	47	54	45	-7	2
4	걸럼트 은행	45	33	23	12	22
5	몽골 우체국은행	230	140	86	90	144
6	이릴르 은행	5	5	5	0	0
7	울란바타르시은행	9	9	9	0	0
8	캐피탈 은행	27	25	18	2	9
9	운송업 은행	3	3	4	0	-1
10	크레디트 은행	7	10	9	-3	-2
11	저스 은행[17]	37	32	33	5	4
12	아노드 은행[18]	26	21	23	5	3
13	캐피트롱 은행	17	18	20	-1	-3
14	하스 은행	40	39	40	1	0
15	우허 은행	0	1	1	-1	-1
16	칭기스 은행	2	1	1	1	1
	계	981	832	731	149	250

자료: 몽골중앙은행 자료집(2008)

17) 2009.12 파산하여 국가가 100% 소유하는 State Bank로 개칭.자산 1,400억투그릭.
18) 2009.12 현재 파산으로 중앙은행이 인수 작업 중.

○ 은행 지점의 증가로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금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

□ **금융거래의 급성장으로 GDP 대비 은행 총자산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은행의 영업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을 보여줌**

○ 2007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은행 정기예금 등의 증가로 M2/GDP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13.3% 증가한 52.7%를 기록

○ 2007년 GDP 대비 저축과 대출 비중은 각각 31.4%와 38.6%로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GDP대비 은행 총자산도 74.2%로 전년대비(62.5%) 급증하였음

□ **은행 대출은 2004~2007년에 3.4배(2007년 말 기준)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5% 수준임**

<주요 자금 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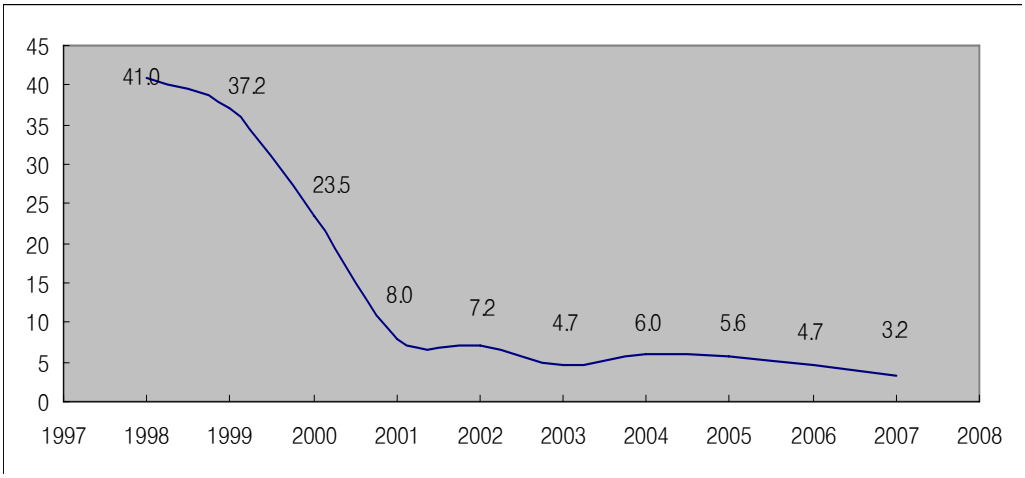
지표	2000 – 2003 평균	2005	2006	2007
M2/GDP	35.9	43.5	45.2	48.4
대출/GDP	17.4	31.2	34.1	38.6
저축/GDP	16.3	26.6	27.5	31.4
은행 총자산/GDP	38.3	57.0	62.5	74.2

* 자료: 몽골중앙은행 결산자료 (2008)

○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은행들이 우량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낮추고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부실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 부실채권비율은 2000년 23.5%에서 '07년 3.2%까지 하락

<위험대출/총대출 비율의 변화 추이(%)>



* 자료: 몽골중앙은행 결산자료 (2008)

□ 외화대출비중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44%에서 2007년 33%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이며, 대출을 받은 몇몇 기업은 외화 수익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환 헤지가 되지 않은 상태

□ 산업부문별 대출 수요

○ 대출잔액 기준 산업여신은 44.1%이고 개인여신은 55.9% 수준임

- 산업여신 중 건설업이 35.5%, 가공업이 29.5%, 농림수산어업이 17.2%, 광산 및 채굴업이 14.3%를 차지

- 주택 관련 가계여신비중(20%)이 급증하면서 은행여신의 부동산가격 리스크 증가

<산업 부문별 대출 비중>

(단위: 10억 투그릭)

대출 부문	2004	2005	2006	2007
산업 대출	**260.8**	**370.4**	**474.1**	**906.7**
농업, 수렵, 임업, 어업	28.4	57.4	100.1	156.1
전기, 가스산업, 수도 공급	15.1	19.3	14.2	31.7
건설	51.9	76.8	111.1	321.6
광산, 채굴업	52.1	77.4	92.3	130.0
가공업	113.3	139.5	156.5	267.3
비 산업대출	**346.0**	**489.5**	**749.2**	**1149.4**
도소매, 생활용품 수리	209.9	285.6	384.8	600.5
관광, 숙박, 요식업	12.3	17.7	22.5	26.9
교통, 보관업, 통신	16.7	36.7	52.0	34.8
부동산, 임대업	15.6	20.6	36.6	50.6
보건, 교육	6.2	6.2	11.9	13.8
재정 중계	5.2	8.7	14.3	14.5
그외 (개인의 필요에 의한 대출)	80.1	114.0	227.1	408.3
총계	**606.8**	**859.8**	**1223.3**	**2056.1**

자료: 몽골중앙은행 결산자료 (2008)

□ 대출 이자율

○ 전통적으로 몽골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우량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경쟁 심화로 예대금리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은행들의 투그릭 대출 평균 이자율은 2004~2007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말 19.9%를 기록하였으며, 외화대출은 2004년부터 하락 기조를 유지하여 2007년 말에 14.2%에 도달

- 2008년 1월 현재 투그릭의 대출 평균 이자율은 17.3%이며, 외화 대출 평균 이자율은 13.9%임

<대출 이자율 변화 추이>

%

	2000-2003 평균	2004	2005	2006	2007	2004-2007 평균
투그릭 대출	35.3	30	28.3	24.5	19.9	25.7
(전년대비 차이)	-	-1.5	-1.7	-3.8	-4.6	-
외화 대출	21.9	17.9	14.8	15.5	14.2	15.6
(전년대비 차이)	-	-1.7	-3.1	0.7	-1.3	-

* 자료: 몽골중앙은행 결산자료 (2008)

□ 은행 건전성

○ 은행부문의 금융건전성지표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SI)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

- BIS비율은 20%('02년)에서 14%('07년)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

○ 은행의 ROE는 '02년 21%에서 '06년 14%로 하락하다 '07년 들어 다시 21%로 상승

- 몽골은행의 높은 수익성은 높은 예대금리차, 해외 자금조달을 통한 조달비용 감소 등에 기인

○ 자산이익률(ROA)은 산업화 초기의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평균 2.5%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몽골은행의 예대금리는 '02년 67%에서 '07년 101%로 증가

<은행섹터의 핵심 금융건전성지수(FSI) 변화>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본적정성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20.0	20.4	20.0	18.2	18.1	14.2
위험자산대비 기본자본(Tier-1)	17.7	18.5	17.4	15.8	15.6	11.9
건전성(quality)						
NPL/총대출	5.0	4.7	6.0	5.6	4.7	3.2
수익성						
ROA (세후)	4.3	3.1	2.5	2.2	2.7	2.5
ROE (세후)	20.8	14.7	12.3	12.1	14.3	20.8
이자/총수입	39.8	35.9	31.5	30.9	27.8	28.3
비이자비용/총수입	50.3	49.1	58.8	54.3	55.4	46.5
유동성						
유동자산/총자산	39.9	35.3	31.6	36.0	37.9	28.1
유동자산/단기부채	...	83.5	28.8	37.7	38.2	37.0
대출/예금 비율(예대비율)	67.3	78.5	91.9	89.7	95.6	101.3

자료: IMF (2008)

3. 보험 시장

□ **몽골의 보험시장은 최근 법률 개선, 보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 현재 보험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는 일반 보험사 15개, 장기보험사 1개, 보험중개회사 4개 등 모두 20개가 존재

□ **'08년 상반기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20개 회사의 전체 자본규모는 349억 투그릭으로 '07년 상반기와 비교시 42.4%(104억 투그릭) 증가**

○ 장기생활보험인 「내셔널 라이프」 보험사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시장의 규모가 급증

□ **보험시장은 경쟁관계를 보면 「몽골 보험」, 「버디 보험」, 「믹 보험」 등 3대 보험사가 전체 자본의 50%를 넘을 정도로 과점체제를 유지**

○ 「몽골 보험」의 자본금규모는 130억 투그릭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37.3%를 차지

○ 반면, 규모가 가장 적은 「니스릴르 보험」은 7억 투그릭의 자본으로 보험시장의 1.9%를 차지

<보험사들의 자본 및 누적수입 현황 (2008년 상반기)>

백만 투그릭, %

	회사명	총 자본		누적수입	
			점유율		점유율
1	몽골 보험	13 014.5	37.3	4,448.2	31.0
2	버디보험	3 310.9	9.5	3,559.4	24.8
3	믹 보험	2 211.5	6.3	1,390.3	9.7
4	프라임 제네랄 보험	2 019.5	5.8	765.5	5.3
5	아르드 보험	1 874.7	5.4	511.3	3.6
6	너밍 보험	1 786.5	5.1	730.7	5.1
7	투쉬크 보험	1 509.7	4.3	556.2	3.9
8	프랙티컬 보험	1 484.7	4.3	875.5	6.1
9	네셔널 라이프 보험	1 296.5	3.7	0	0
10	울란바타르 시 보험	1 284.0	3.7	333.0	2.3
11	울란바타르 보험	1 042.1	3.0	86.9	0.6
12	몽골 트라스트 홀딩크 보험	924.3	2.6	48.1	0.3
13	강 잠 보험	865.0	2.5	76.6	0.5
14	저넝 보험	841.7	2.4	229.5	1.6
15	뭉흐 보험	804.6	2.3	659.6	4.6
16	니스릴르 보험	660.7	1.9	90.6	0.6
	합계	34 930.9	100.0	14361.4	100.0

내부자료

□ 보험산업 수익 현황

○ 보험시장의 누적수익('08년 상반기)은 약 144억 투그릭 정도로 추정

- 재보험비용 33억 투그릭(22.9%), 지급보험료 4천 투그릭(0.3%)을 제외하고 110억 투그릭의 순수입을 올렸음

○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보면, 「몽골 보험」이 44억 투그릭의 누적수입으로 전체시장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디 보험」이 24.8%로 그 뒤를 따름

○ 사업 분야별 누적수입

- 귀중품 및 재산 보험은 87억 투그릭(61.1%)
- 상해보험은 238억 투그릭(26.5%)
- 건강(질병) 생명보험은 14억 투그릭(9.8%)
- 예금 보험(은행 예금의 보장)은 4억 투그릭(2.6%)를 차지

4. 자본시장

□ 자본시장은 은행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몽골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몽골의 자본시장은 1991년 최초로 형성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4단계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 1991~'95년 사이에 1차 시장을 조직하고 정부 소유 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실시
- 다음 단계인 1995~'99년에는 2차시장 조직과 주식거래가 이루어짐

- 2000~'04년에는 주식의 종류가 줄어들고 소수의 투자자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고, 주가 하락으로 주식시장의 주요 통계지수들이 하락하였으며 영세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입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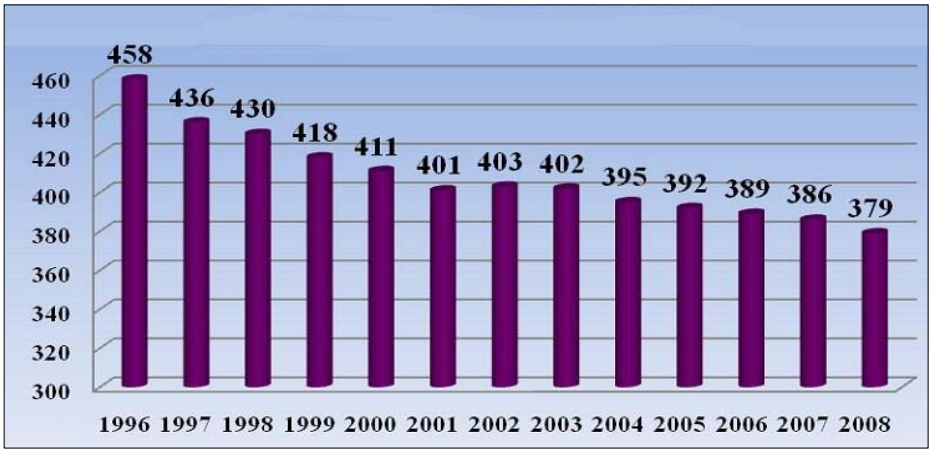
○ 2005년부터 몽골의 자본시장은 낮은 비용으로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도록 주식 소유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

□ 자본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1~1995년에 민영화를 목적으로 475개의 국영공장을 자본시장에 등록시킨 이후 점차로 그 수가 줄어듦

○ 2005년부터 기업들이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추가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12개의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거래되고 있음

○ 또한 자본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업종별 분포도를 보면 광산 16.4%, 제조업 18.2%, 농업 21.6%, 건설/교통 18.5% 등이며, 그 중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 지분이 66.2%를 차지하고 있음

<상장 회사 수의 변화 추이>



* 자료: 몽골증권거래소

□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0년 이후부터 몽골의 자본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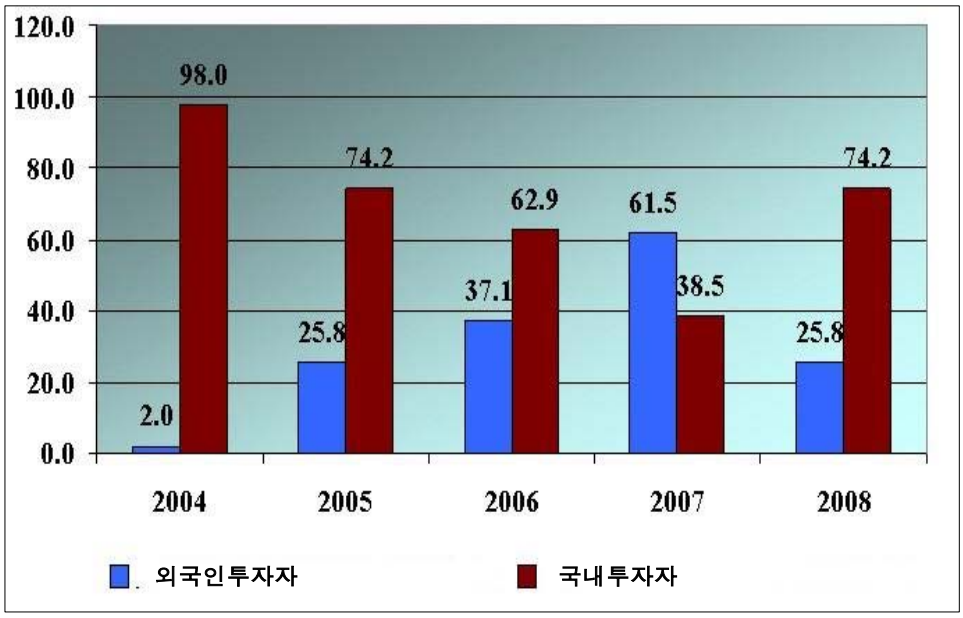
- 2004년에 몽골의 자본시장의 연간 총 거래량은 발행주식의 2.0%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13배가 상승한 25.8%를 기록

○ 외국인 투자 사례를 보면, 2007년 영국의 투자재단이 「바가노르」 사의 총 주식의 10%(약 30억 투그릭)를 시장에서 매수

- 2007년에 몽골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1.5%에 육박하며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1,020억 투그릭의 전체 거래규모 중 약 620억 투그릭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

<투자 주체별 비중>

(2008년 2/4분기 기준, 단위: %)



□ 현재 몽골의 자본시장에는 36개의 증권회사가 영업 중이며, 그 중 25%인 9개사는 100% 해외 자본이 투자된 경우임

○ 증권회사들은 자기자본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외 투자재단이나 은행들도 주식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증권시장은 2007년에 1,026억 투그릭의 거래가 이루어져 2006년보다 무려 5.7배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시장규모는 5.4배, top-20 인덱스[19]가 5.1배 상승

○ 시장규모의 폭발적인 증가 요인은 주가의 상승과 새로운 IPO 시장의 출현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GDP 대비 시장가치의 비율을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의 가치가 GDP를 초과하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50~70%로 나타남

○ 몽골의 경우 2006년 말에 5.2%이었고, 2007년 말에는 2006년에 비해 3.3배 높아진 17%를 기록

–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은행에 집중(96%)된 몽골의 자본시장은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국제표준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별 비중 비교>

(2007년말 기준, 단위: %)

	은행대출	회사채	주식	신용거래
선진 7개국	23	8	63	6
개발도상국	27	20	40	14
몽골	96	0.2	3.8	0.1

* 자료: 몽골 중앙은행

19) 몽골 자본시장의 종합 목록인 TOP-20는 광산, 산업, 농업, 교통, 상업, 건설, 관광 등 7개 분야의 주요기업들로 바스켓을 구성하며 6개월마다 목록을 갱신하고 있음

□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을 시장가치 외에 시장의 안정 상태, 증권의 가치 반영 능력 등의 지표들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 2008년 8개 증권회사가 새로 등록하여 자본시장의 회원수가 36개로 늘어났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9개사는 해외 자본이 투자

– 비록 수치상으로 시가총액, 거래금액, 지수, 증권발행인 수 등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본시장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

□ **채권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국채를 발행하였고 회사채는 2001년부터 거래가 시작되었음**

○ 건설 대기업인 「신종」이 채권을 최초로 시장에서 발행한 이후 9개사가 11종의 회사채를 월평균 1.47%의 이자율과 8~24개월의 기간으로 발행

5. 금융시장 진출시 고려사항

□ 단순 자본투자보다는 경영참가를 동반한 형태가 은행의 미래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더 큰 자본투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투자 대상은행의 선택

○ 시장에서 이미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지불능력이 있으며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

○ 재무지표가 건강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으며 경영에 참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은행

○ 위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은행권의 환경, 발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투자 대상 선택

□ 기회요인과 장애요소

[기회요인]

○ 틈새시장

- 대출 시장에서 은행 이외의 2금융권, 저축대부조합, 사채, 전당포 등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대출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

○ 풍부한 지하자원

- 몽골의 광산들이 경기회복과 함께 채굴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경제 수준을 지금보다 2~3배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수출과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자본도 늘어나 은행권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국가펀드의 조성

- 몽골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펀드가 조성되면 국내로 유입되는 재정이 증가하여 처음에는 은행의 대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은행,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높은 투자수익률

- 금융시장에서 대출과 예금 이자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좋은 비즈니스 환경

- 세계은행(World Bank)은 '비즈니스 관리' 연구보고서에서 몽골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환경 지수가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
- 특히 몽골은 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문제, 취직, 해고, 재산권 등록 등에서 좋은 지수를 보였음. 연구에 참여한 175개국 가운데 몽골은 45위에 위치

<각국의 투자환경 비교>

지표	몽골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되는 시간 (일)	20	35	28	20	2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 (1인당 허용되는 수입의 규모)	5.1	9.3	2.7	7.0	9.8
특별 허가를 받는 제도적 단계(수)	18	29	22	32	20
재산신고 시 요구되는 시간 (일)	11	32	52	52	8
쉽게 대출 받을 가능성 (175개국과 비교한 순서)	65	101	159	48	65
전체 세금 의무 (전체 수익의 비율)	32.2	77.1	54.2	45.0	67.8
수출 시 요구되는 증명서 (수)	11	6	8	14	-
수출하는 기간 (일)	66	18	39	93	-
계약 실행 기간 (일)	314	292	178	183	-

출처: 세계은행 (비즈니스 관리 2006년 결산)

○ 투그릭 환율의 강세 추세 진입

- 세계시장에서 몽골의 주력 수출 상품인 금, 구리의 가격 상승,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 흐름으로 투그릭이 달러에 대해 강세 추

세가 시작됨

- 신규 채굴 광산에 외국자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투그릭의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비교적 낮은 세율

- 현재 몽골 법은 기업체의 수익이 30억 투그릭까지 10%, 30억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부과. 이는 개발도상국의 세금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임

○ 인적 자원

- 국내 노동 시장에서 금융 분야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최근 10여 년간 상당히 증가하였고, 지식의 질과 업무 수행 능력도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현재 은행권에서 일하고 있는 경험 있고 유능한 직원들을 편리한 근무 조건과 환경으로 선발할 여지도 큼

[장애 요소]

○ 변동적인 경제 상황

- 해외 경기의 변동에 지나치게 연동. 광산, 금, 축산업, 건설 등 한정된 분야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산업화 외의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원유가격 등 모두 해외요인들에 영향

○ 예금보험의 미비

-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업무도 안정되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취약함. 몽골은 최근 예금 보험에 관해 입법 계획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
- 본 법안에서는 고객의 예금을 1백5십만 투그릭까지, 외화예금은 전액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높은 대출 위험

- 개인 대출이 급증하면서 불량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기업체의 회계기준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대출 업무에 대한 감독이 미약한 점 등이 대출의 위험을 높이고 있음.

○ 그림자 경제

- 그림자 경제라 함은 법으로 허용된 거래에서 얻은 알려지지 않은 수익들(자금, 교역 계약)을 말하며 그림자 경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자금의 지표로 추정됨

-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림자 경제의 규모가 어림잡아서 GDP의 35~44%를 차지. 몽골의 경우에도 GDP의 30~38%로 추정.

○ 미비한 법률 환경

- 몽골은 해외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로 신기술, 산업화 분야에 우호적인 법률을 제정. 은행과 금융권에 투자하려는 해외자본에게 매력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지 못함. 지나친 법원의 관료주의가 비용의 증대를 초래함

○ 교통, 통신 비용

- 작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시장은 광활한 영토에 널리 자리하고 있어 전국적인 지점 네트워크를 갖추고 운영하는데 많은 교통과 통신 비용을 지출

- 농업 대출과 그 외 소액 대출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칸은행과 하스은행의 지점들이 전체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불투명한 거래 관행

- 세계은행의 '자본 투자 환경 결산' 자료에 따르면 몽골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뇌물 수수 관행과 정부와 비스니스 분야에서 거래할 때의 명확한 상황이나 보고가 부족한 것을 꼽음

○ 낮은 산업 경쟁력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가 없는 실정. 주력 수출 품목은 구리, 금, 석탄 등 원자재들과 중국, 홍콩, 대만 등 외국자본이 생산한 편물, 캐시미어 제품임
- 이는 몽골에 외국 은행의 지점이 들어와 투자하여도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취약한 교통 인프라

- 전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기반이 취약한 상태. 특히, 도로는 국토 1㎢ 면적당 0.03㎞에 불과하며 도로 포장율도 3.4%에 불과
- 철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단 하나의 노선이 있으며, 항공부분은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업무만을 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높은 사업비용

- 몽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산업의 고정비용이 높은 편임. 전기, 난방, 수도, 운송 비용이 높고 산업화와 관련된 기술과 설비를 외부에서 거의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권의 평균 임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력 비용이 높은 편

Ⅳ. 향후 협력방향

1. 농업협력 부문

가. 기본방향

□ 몽골 농업은 농축산물 생산 증대 여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유통시설 기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상태임

- 최근 농지 인프라 확충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농자재 공급, 농산물 저장시설 등이 미비
- 절대적 비중을 점하는 축산업에 대한 축산물 가공공장 등이 부족

□ 최근 한·몽간 농업협력 교류가 농진청 등 정부기관 주도로 추진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농업기술 지원과 식량 증산에 우선

-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수출 등에 대한 지원 협력 단계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음
- 이 분야에서 한국 농협은 그간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자재 공급과 유통시설 지원 등에 상당한 역량과 지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몽간 농업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부문에서 상호 연계 협력하는 방향을 진행할 필요

- 한국 농협의 對몽골 농업협력은 정부 차원의 협력 사업과 연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를 뒷받침하되,
- 민간 협력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09년 6월에 포괄적 기본 협력방향을 담은 한·몽 농협간 MOU 체결[20]함

20) 2009.6. 울란바타르에서 한몽 농협 회장간 체결

<참 고> 한·몽 농협간 MOU 체결 내용

① 몽골내 유망자원(축산, 사료, 비료원료 등)의 공동탐사 및 개발 추진
- 농축산 합작농장의 공동 개발
- 사료작물 생산 협력
- 인광석 등 비료원료 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② 회원조합과 유관 농업인단체를 포함, 물자교역과 무역교류 가능 방안 검토 및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 한국의 농자재·종묘·농기계 수출, 몽골의 가능품목 수입 등

③ 친환경 축산분야의 기술이전과 사업개발을 위한 인력교류 및 전문가 파견, 연수협력 등의 적극 지원

④ 몽골내 농업금융·농업보험사업, 농업 여행사업 분야의 개발 협력

⑤ 한국농협의 몽골농협에 대한 지원
- 유통사업 활성화 및 협동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제공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몽골농협을 위한 체계적 컨설팅 지원 추진
- 선진 정보기술 시스템 개발 지원
- 몽골농협은 한국농협의 정보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 우선 추진

<참 고> 몽골농협연합회 개황

△ **소재지** : 몽골 울란바토르
△ **설 립** : 1967년 (1992년 시장개방정책에 따른 조직변경)
△ **조 직** : 3단계 종합농협
- 지역조합 404개 (조합원 9만, 농가수 3만8천)
- 지역연합회 19개, 중앙본부 1개

△ **사 업** : 중앙회 (지도, 홍보, 교육, 농정 등)
지역조합 (축산생산·유통 등)
△ **취급물량** : 약 40억 tugrugs (약 400만불)
△ **임원 현황**
- 회장 : 바야르사이칸(Bayartsaikhan) * 전직 재경부장관, 국회의원
- 부회장(2) : 밧문크(Batmunkh) , 출룬밧(Chuluunbat)

나. 향후 협력방안

① 소규모 농산물 저장시설 보급

○ 교통 인프라 불리, 농장 산재 등으로 혹한 및 혹서기를 대비 저장시설 확충이 절실
○ 몽골의 식량자급도 향상, 장래 식량기지 건설 등 농산물 저장 수요 확대로 저장시설 확보 필수적
○ 농협의 재원으로 저장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마련

② 목초 및 사료용 옥수수 확보를 위한 (주)농협사료의 진출

○ 현재 농진청이 동몽골에서 목초류 시범재배 중
○ 농협은 몽골농협과 협력, 목초 가공공장 건설 검토
○ 몽골농협과 협력, 사료용 옥수수 시범재배와 증산시 옥수수 수입 검토

③ 축산물 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주)목우촌의 진출

○ 몽골내 풍부한 축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가공공장 건설 검토
○ 양질의 축산가공품 생산으로 몽골 내 소비 내지는 인근 러시아, 중국, CIS 국 등에 수출
○ 한국형 음식을 선호하고 있어 '또래오래' 가맹점 수출로 몽골내 축산가공식품 시장 점유율 제고

④ 기체결한 한몽농협간 MOU의 실행 구체화를 위한 중앙회 및 계열사의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 농협사료, 목우촌을 비롯한 농협물류, 농협유통, 농협여행, 남해화학, 서울우유 등 계열사들의 광범위한 단계별 진출 방안 수립 검토

⑤ 직원 몽골농협 파견 등

○ 농업협력 부문을 총괄할 직원 몽골농협에 파견근무 시행
○ 현지 주재 근무를 통한 부문별 몽골 진출 타당성 검토 및 몽골 현지 전문가 육성

⑥ 시범농장 운영

○ 국제옥수수재단 등과 협조로 사료용 내지 바이오에너지용 옥수수 재배 적극 검토
○ 현지의 기후, 토양, 인프라 등 농업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농장 운영이 바람직
○ 대규모농지는 적지 부족, 각지 분산된 경우가 많고 임차대상지[21]는 휴경지가 대부분으로 농지용도 회복에 비용 소요
○ 현재 농진청이 시범재배하고 있는 동몽골은 원격지로서 울란바타르 인근 지역 농장 확보를 검토할 필요
○ 최근 밀과 감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자급률이 급속히 상승하여 농진청 등과 협조로 생산성 향상 지원 방향이 바람직

2. 금융협력 부문

가. 기본 방향

□ 몽골의 금융시장은 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며, 아직 금융인프라가 미비한 몽골 금융산업의 투자유인은 클 것으로 보임

– 몽골의 경제발전의 기본 방향은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및

21) 농지는 국유, 농지임차 허용규모는 2만ha,채소는 200ha임. 임대차 기간은 최대 60년.임차료는 물 확보 수준에 따라 700~8,000튀그릭/ha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몽골 금융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자본이 직접투자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진출을 추진

□ 최근 자원부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해외 자원개발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몽골진출에 대한 유인이 높아짐

-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제휴, 기술협조 등 현지 은행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한국 농협은 국내 은행과 같은 금융역량이 있을 뿐 아니라 농업금융, 상호금융, 유통사업 부문을 연계하는 종합금융 역량과 기반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과 진출 기회가 많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농협의 몽골 금융부문 진출은 현지 농업 및 원자재 개발사업, 농축산물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

- 특히 농업개발과 연계한 농업금융은 몽골 금융시장에 선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금융, 상호금융, 축협부문에서 몽골측이 한국측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현지 전문요원 사전 양성

- 농협은 몽골의 국영 자원개발기업과 상호협력 극대화 부문을 발굴하여 MOU 체결 검토

나. 향후 협력방향

ⅰ) 몽골 우량 금융기관(은행)과 포괄적 업무협력 MOU 체결 검토

○ 직원 몽골 연수, 파견 등

- 상업은행, 농업금융, 상호금융 섹터 등 대상
- 현지 주재 근무를 통한 몽골 진출 타당성 검토
  · 1단계 은행, 2단계 증권, 보험, 투자회사 등
- 타당성 검토 후 진출 결정시 몽골 현지전문가 등 육성 확보

○ 한국 거주 몽골인들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 제공

- 환거래계약 및 자금결제용 계좌 개설
- 서울 동대문의 몽골타운 인근에 몽골인 전용지점 개설 운영
- CD/ATM 이용 송금서비스 시행

<참고> 한국의 은행들과 몽골의 은행간 업무제휴 현황

한 국 시중은행	몽골측 MOU 체결은행	MOU 체결시기	주요 협력 내용
국민은행	**칸은행**[22]	2006.3	동대문 몽골타운 오장동지점 일요일 근무, 몽골어로 된 한글교재 보급
외환은행	**칸은행**	2007.3	퇴계로지점 일요 근무. 몽골사회보험청과 MOU.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몽골에서 무료 개안 수술 봉사
신한은행	**칸은행**	2007.6	종로5가 지점 몽골근로자 휴일 전용 송금 업무지원. 몽골 사회보험청과 MOU
우리은행	**칸은행**	2008.4	CD/ATM 해외송금 서비스. 몽골 사회보험청과 MOU. 광희동지점 일요 근무
하나은행	TDB (Trade & Development Bank)[23]	2009.9	자동화기 해외송금 서비스, 몽골근로자 대상 전자금융 교육

22) 구 농업은행이 2003년 민영화. 일본 자본이 지분투자
23) 미국자본이 투자

ii) 현지 금융기관 인수 등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2000년 이후 해외 투자자본의 몽골 은행산업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 해외자본을 통한 경영개선, 건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직접투자(FDI)로 간주

- 주요 해외투자자는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등으로 이들은행이 투자한 몽골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은 35%(2008년 7월 기준) 수준임

<참고> 몽골 은행에 대한 해외자본투자 현황('08년)>

은행명	해외 투자자	신규투자 진출일	시장 점유율
칸 은행	•H.S. Securities •타방 벅그드 그룹 •IFC •DAI company	2003년 3월	자산 : 21.4% 대출 : 23.0% 예금 : 24.5%
민족자본 투자은행	몽골,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자본 투자자	2005년 12월	자산 : 1.2% 대출 : 0.9% 예금 : 1.1%
저스 은행	•EBRD (25%) •몽골 투자자 (75%)	2008년 5월	자산 : 6.9% 대출 : 6.7% 예금 : 7.4%
칭기스칸 은행	•러시아의 Millennium Securities company (100%)	2003년	자산 : 3.7% 대출 : 3.7% 예금 : 0.2%
저축 은행	합작 기업 : •칭기스칸 은행 •러시아 브랏트스키 국민은행 •몽골의 보험 회사	2006년 11월	자산 : 2.2% 대출 : 2.1% 예금 : 2.3%
해외 자본이 투자된 은행들 전체			자산 : 35.4% 대출 : 36.4% 예금 : 35.5%

○ 투자방안 검토

① 단순 지분투자 방안

-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참여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
  - ■ 이미 확고한 시장지위를 학보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형은행(상업은행, 걸럼트 등)을 대상으로 접근

② 경영 참여를 위한 지분투자(경영위탁, 공동경영 등) 방안

-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이나 부실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인 은행 등을 선정

-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위탁이나 공동경영은 성공한 해외자본의 기본 전략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

  - ■ 상품개발, 은행업무의 효율화, 기존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업무 시너지효과를 기대

③ 내국인투자자와 컨소시엄 방식

- 내국인투자자(은행, 기업 등)와의 컨소시엄은 저축은행의 민영화과정의 일환으로 추진

- 저축은행 컨소시엄 사례
  - ■ 칭기스칸-브리야트 국민은행-몽골 보험회사: 234억 투그릭

iii) 포괄적인 투자 방안 모색

○ 몽골의 우량 자원개발기업(국영 포함)과 MOU 체결

- 상호협력 극대화 부문 발굴
- 각종 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투자 금융업무의 금융자문 및 주선에 대한 우선적인 독점권 확보

○ 몽골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국내 우량기업들과 MOU 체결(농협 계열사 포함)

- 몽골의 자원개발 참여, 철도 및 도로 등 SOC 분야 참여 기업
- 몽골의 농업개발(사료공장, 축산물가공공장, 농축산물 저장시설 등) 사업 참여 기업

<참 고 문 헌>

이종경, 몽골의 축산과 조사료 자원 현황, 한국초지사료학회, 2009.2
허장 외, 해외농업개발전략의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10
주몽골 한국대사관 (http://mng.mofat.go.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은행(www.bok.or.kr)
관세청(www.customs.go.kr)

Bank of Mongolia(www.mongolbank.mn)

EIU Country Report, 2008.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____, IMF Country Report, 2008.

____, IMF Country Report, 2007.

Mongolian Stock Exchange(www.mse.mn)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00-200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Index, 2007-2008.

Heritage & Wall Street Journal, Economic Freedom Index, 2008.